

# 신한대 약술형논술

국어

# 목차

---

|                               |               |
|-------------------------------|---------------|
| <b>2026학년도 인문계열 .....</b>     | <b>3</b>      |
| 문항 1 .....                    | 3             |
| 문항 2 .....                    | 5             |
| 문항 3 .....                    | 8             |
| 문항 4 .....                    | 11            |
| 문항 5 .....                    | 13            |
| 문항 6 .....                    | 16            |
| 문항 7 .....                    | 18            |
| 문항 8 .....                    | 21            |
| 문항 9 .....                    | 23            |
| <br><b>2026학년도 자연계열 .....</b> | <br><b>25</b> |
| 문항 1 .....                    | 25            |
| 문항 2 .....                    | 27            |
| 문항 3 .....                    | 30            |
| 문항 4 .....                    | 33            |
| 문항 5 .....                    | 36            |
| 문항 6 .....                    | 39            |
| <br><b>2025학년도 인문계열 .....</b> | <br><b>42</b> |
| 문항 1 .....                    | 42            |
| 문항 2 .....                    | 44            |
| 문항 3 .....                    | 46            |
| 문항 4 .....                    | 48            |
| 문항 5 .....                    | 50            |
| 문항 6 .....                    | 52            |
| 문항 7 .....                    | 54            |
| 문항 8 .....                    | 56            |
| 문항 9 .....                    | 58            |
| <br><b>2025학년도 자연계열 .....</b> | <br><b>60</b> |
| 문항 1 .....                    | 60            |
| 문항 2 .....                    | 62            |
| 문항 3 .....                    | 65            |
| 문항 4 .....                    | 68            |
| 문항 5 .....                    | 71            |
| 문항 6 .....                    | 74            |

# 2026학년도 인문계열

## 문항 1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1.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쓰시오.

### <보 기>

황인숙의 「봄눈 오는 밤」은 동음이의어의 쓰임이 두드러진 시이다.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시에서 이러한 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있다.

1연에서는 ( ① )의 의미로 시어 ‘눈’을 사용하며 초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한다. 2연의 ‘눈’은 중의적으로 읽힌다. ‘눈’의 의미를 ( ② )(으)로 본다면 이는 봄눈에 덮여 있는 나무를 의인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 ③ )의 의미로 본다면 나무가 봄을 맞아 생명력을 발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연에서는 의인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나무’를 청자인 ‘너(네)’로 지칭하고, ( ④ )의 의미를 가지는 ‘눈’은 ‘줄달음’이라는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여 의인화와 함께 역동적 이미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마지막 2행의 싹표 활용과 행간 걸침을 통해 ( ⑤ )(이)라는 ‘눈’의 행위가 내포하는 망설임의 태도와 애뜻함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조 건>

- ①~④: <보기>의 ㉠~㉢ 중에서 골라 기호를 쓸 것.
- ⑤: 2어절의 시구를 찾아 윗글의 표기대로 쓸 것.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예시 답안

답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입 맞추려고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 ④, ⑤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가 모두 정답이면 10점</li> <li>- 4개가 정답이면 8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6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4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점</li> </ul> | 10점 |

## 문항 2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동경 유학생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귀국하여 일본식 국숫집에 들어가 일본인 여인들의 시중을 받는다.

“담바구야 담바구야……. 노이구곤 오데기루네…….”

입을 이상하게 뽀족이 내밀었다 방긋 벌렸다 하고, 젓가락으로 화롯전을 두들겨 가며 장단을 맞춰서 콧노래를 하다가 뚝 그치더니,

“애가 제일 잘해요, 우리는 온 지가 삼사 년밖에 안 되었지만…….” 하며, 병병히 앉았는데 화롯불 가져온 아이를 가리켰다.

“응! 그래? 너는 얼마나 있었길래?”

말뚱도 별로 없이 조용히 앉았는데, 어디로 보아도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솟보기로만 생각하였던 것이, 조선 소리를 잘한다는 것은, 정말 의외였다.

“예서 아주 자라났답니다. 재 어머니가 조선 사람인데요.” 하며, <담바귀 타령>을 하던 계집이, 이때까지 하고 싶던 이야기를 겨우 하게 되었다는 듯이 입이 재게 답을 하고 나서, “그렇지!” 하며 당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소리가 너무도 커다랗기 때문에 ㉠조소하는 것같이 들렸다. 일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미를 가졌다는 계집은 히스테리컬하게 얼굴이 주홍빛이 되고 눈초리가 샅룩해졌다. 어쩐지 조선 사람 어머니를 가진 것이 얹는다는 모양이다.

“정말 그래?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기에?”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 대구에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가 간신히 쳐들면서 대답을 한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있니? 소식은 듣니?”

왜 여기까지 와서 있느냐고 묻는 것은 우스운 수작이지만 나는 정색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 계집은 생글생글하며 나를 쳐다보더니,

“글쎄 그러지 않아도 누가 대구 가시는 이나 있으면 좀 부탁을 해서 알아보고 싶어도, 그것도 안되구……. 천생 언문으로 편지를 쓸 줄 알아야죠.” 하며 이번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커다랗게 웃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조소하는 웃음이었다.

“그럼 아버지하군 지금 헤어져 사는 모양이구나?”

“그야 벌써 헤어졌지요. 내가 열 살 적인가? 아홉 살 적에 나가사키(長崎)로 갔답니다.”

“그래, 그 후에도 소식이 있니?”

“한참 동안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 설이나 쇠고 나간 찾아가 볼 테어요.” 하며, ㉢흐흠 느끼듯이 또 한 번 어색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느 때든지 자기의 기이한 운명을 스스로 조소하면서도 하는 수 없다는 단념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큰 일을 저지르고, 하도 깃구멍이 막혀서 나오는 웃음 같았다.

“아무리 조선 사람이라두 길러낸 어머니가 정다울 테지? 너의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만 지금 찾아가면 그리 반가워는 아니 할걸!”

조선 사람 어머니에게 길리어 자라면서도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고 조선 옷보다는 일본 옷을 입고 딸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조선 사람인 어머니보다는 일본 사람인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리를 초월한 어떠한 이해관계나 일종의 추세라는 타산이 앞을 서기 때문에 이별한 지가 벌써 칠 팔 년이나 된다는 아비를 정처도 없이 찾아나서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제, 이 계집의 팔자가 가엸은 것보다도 그 어미가 한층 더 가엸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도 불쌍하지만, 아버지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찾아가면 설마 내쫓기야 할까요.” 하며 아범을 찾아가면 어떻게 맞아 줄까 하는 그 광경이나 그려보듯이 멀거니 앉았다.

“그래두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니까 싫구, 조선이니까 떠나겠다구 하는 게지, 조선이 일본만큼 좋았다면 조선 사람 배 속에서 나왔다가로서니 불명에 될 것도 없고, 아버지를 찾아가려는 생각도 아니 났을 테지?”

나는 물어보지 않아도 좋을 것까지 짓궂이 물었다. 계집애는 잠자코 웃을 뿐이었다. 나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어느 때까지 늑장을 부리고 앉았을 수도 없어서 새로 들어온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서울에 도착해 머물다가 아내의 초상을 치른다. 그리고 동경에서 교분을 나누었던 카페 여급 정자에게서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다.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을 위한 커다란 준비 시기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내 생애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흥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뒷날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당신은 또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노하실지도 모르나,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지 싶습니다.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白衣)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우어 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송이 속에 파묻히어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化石) 되어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 염상섭, 「만세전」

\*이매망량: 온갖 도깨비. 산천, 목석의 정령에서 생겨난다고 함.

## 2.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쓰시오.

### <보 기>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한다. 경계인은 서로 다른 문화의 경계에 서기 때문에 양면적 속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고 그 속에서 고민하거나 불안감을 호소할 수 있다.

‘계집’은 경계인의 특성을 보이는 인물이다. ‘계집’은 ‘정리’와 ‘타산’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작품 속 ‘정리’는 ‘계집’의 ( ① )을/를, ‘타산’은 ( ② )을/를 가리킨다. 이로 인한 고민이 정서적 불안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 중에 ( ③ )이다.

이러한 경계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현실로 인해, ‘나’는 조선을 ( ④ )에 비유한다. 민족이 처한 현실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계인인 ‘나’는 ( ⑤ )’(이)라는 비유로 현재 자신의 처지를 자조한다.

### <조 건>

- ①, ②, ④, ⑤: 한 단어를 찾아 윗글의 표기대로 쓸 것.
- ③: 윗글의 ㉠~㉣ 중에서 골라 기호를 쓸 것.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 ① 어머니/ 어미
- ② 아버지/ 아비
- ③ ㉢

- ④ 공동묘지/묘지 /무덤
- ⑤ 구더기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어머니/ 어미<br>-둘 다 인정함    | 2  |
| ②     | 아버지/ 아비<br>-둘 다 인정함    | 2  |
| ③     | ㉡                      | 2  |
| ④     | 공동묘지/묘지 /무덤<br>-모두 인정함 | 2  |
| ⑤     | 구더기                    | 2  |

### 문항 3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부유한 귀족 신사 필리어스 포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30도의 물로만 면도를 하는 필리어스 포그는 29도의 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하인을 해고한다. 그리고는 새로운 하인으로 파스파르투를 고용한 후 평소처럼 혁신 클럽으로 향한다.

혁신 클럽에서 포그는 우연히 세계 일주와 관련된 논쟁에 휩쓸리고, 결국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2만 파운드(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를 건 내기를 하게 된다. 포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바로 그날 저녁, 고용한 지 반나절도 안 된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런던에서 출발한다.

포그는 런던을 떠나 프랑스 파리, 이집트 수에즈, 예멘 아덴, 인도 뭄바이, 콜카타를 거쳐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요코하마,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오마하, 뉴욕, 영국 리버풀을 지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80일간의 긴 여정을 계획한다.

포그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뭄바이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첫 번째 위기에 처한다.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었는데, 실제로는 80km 구간에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정을 재촉하려 한다.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포그는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한다. 포그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은 코끼리 주인이 값을 더 올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이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값의 스무 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대답한다.

포그 일행은 오랜 흥정 끝에 얻은 2,000파운드짜리 코끼리를 타고, 인도의 밀림을 헤쳐 나간다. 그러던 중 일행은 브라만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만나게 된다. 끊어진 철길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그 일행은 그녀를 구한다. 그리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포그의 호의에 감동하여 그와 동행하기로 한다.

포그 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도 갖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대륙 횡단 열차를 탄다. 그러던 도중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갈아타야 할 기차를 놓치자 썰매를 빌리고, 썰매에 돛을 달아 개조하여 달린 끝에 결국 다른 열차로 갈아탄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5분 차이로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치고 만다. 포그는 항구를 둘러보다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선 ‘앙리에타호’를 발견한다.

‘앙리에타호’의 선장은 태워 달라는 포그 일행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지만,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제시하자 결국 승낙한다. 대서양 항해를 하던 도중 연료가 떨어지자, 포그는 만든 지 20년 된 5만 달러짜리 배 ‘앙리에타호’를 6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산다. 그런 후에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며 항해를 마친다. 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국에 도착한 포그는 약속된 시간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혁신 클럽 홀에 들어선다.

포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여행을 지속해 나간다. 내기에서 이겨야만 하는 포그로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포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 포그는 과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가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것은 아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다른 일반 여행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얼마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자. A 소비자는 1,500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A와 B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이다. 그런데 상인이 사과의 가격이 한 개에 500원이라고 말한다면, A 소비자는 1,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고 B 소비자는 5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A 소비자는 사과 한 개를 사 먹기 위해서 1,5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고, B 소비자는 1,000원까지는 돈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0원만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때 각각 1,000원과 500원의 덤을 경제 이론에서 소비자 잉여라고 말하며, A와 B 소비자 중 소비자 잉여가 큰 A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포그와 같이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돌아가서, 포그는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염두에 두고 배포 있게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부름으로써 매 순간 위기를 극복했고, 마침내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포그는 상금으로 2만 파운드를 받았지만, 여행 중에 약 1만 9,000파운드를 써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1,000파운드는 하인 파스파르투와, 자신을 은행 강도로 오해하여 여행을 방해했던 픽스 형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포그가 실제로 얻은 금전적 소득은 거의 없었다.

혹자는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포그는 세계 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체험을 수없이 했으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이익을 얻었다. 런던으로 돌아와 아우다 부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이다. 소설의 작가 쥘 베른은 소설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위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팬대를 내려놓는다. 포그처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나만의 소비자 잉여를 얻고 돌아올 것이다.

### 3.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보 기>

| 구분   |                        | ( ① )                                      | ( ② )                                              |
|------|------------------------|--------------------------------------------|----------------------------------------------------|
| 개념   |                        | •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 | •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
| 사례 1 | 사과의 시장 가격: 500원        | • A 소비자: 1,500원<br>• B 소비자: 1,000원         | • A 소비자 이득: ( ③ )<br>• B 소비자 이득: (       )         |
| 사례 2 | 포그의 80일의 세계 일주 ‘여행 상품’ | • 매 순간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이 제시한 가격       | • ( ④ ), ( ⑤ )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답 :

- ① 지불 용의 가격
- ② 소비자 잉여
- ③ 1,000원
- ④ (세계 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체험
- ⑤ 아우다 부인과의 결혼 약속(아우다 (부인), 결혼 (약속), 동반자)  
또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의 가치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④와 ⑤는 정답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li> <li>- 4개가 정답이면 8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6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4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점</li> </ul> | 10점 |

## 문항 4

[문제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재미있어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 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는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효율성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킨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4. <보기>는 뒷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 중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4개 찾아 각각의 기호를 쓰시오.

<보 기>

- ㉠ 경쟁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경쟁 상대의 승복을 통해 지속되었다.
- ㉡ 일상 경험(놀이·오락), 하위징아의 이론, 흄스의 철학을 차례로 끌어와 경쟁은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 ㉢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인 자유 경쟁은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앞으로 무한 자유 경쟁을 위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 ㉣ 우리가 어려서부터 즐겨 온 놀이와 오락에는 대부분 경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을 능가해 최고가 되어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
- ㉤ 경쟁은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의 가난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게 한 동력으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수행하여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했다.
- ㉥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인 자유 경쟁은 사람들의 이기심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루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 ㉦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규칙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인간 사회는 경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 예시 답안

답 :

① ㉡

② ㉣

③ ㉤

④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br>- ①, ②, ③, ④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함<br>-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br>-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br><hr/> - 4개가 정답이면 10점<br>- 3개가 정답이면 7.5점<br>- 2개가 정답이면 5점<br>- 1개가 정답이면 2.5점 | 10점 |

**문항 5**

**[문제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릴라는 꿈꾸는 표정으로 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앤, 네가 여기에 있어 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수는 없단다. 그건 말이 안돼.”

앤이 경쾌하게 웃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희생이라뇨? 초록 지붕 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다고요. 우린 이 정든 옛집을 지켜야만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주머니. 전 레드 먼드에 가지 않아요.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나는 언제나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곤 했다. 가령 국문학을 전공해서 소설가가 된 사람 보다는, 인공 지능 로봇을 만들던 공학자가 별안간 작가로 데뷔하는 삶에 더 큰 매혹을 느낀다. 인생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길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경기도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유독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이기에 강연 도중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공무원이라고 대답한 학생부터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그중에는 ‘범죄 심리 분석관’도 있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학생에게 내가 만났던 한 경찰관에 관해 얘기해 주고 싶었다.

그분은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일하며 범죄자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심리 분석에 참여했다. 누구보다 세상의 악을 많이 보았을 그 남자의 눈이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란 일은 둘째로 치고, 그가 했던 말들은 기록해 놓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을 끌었다. 취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에 가장 남았던 말은 이것이었다.

“제가 원해서 이 직업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유별난 소명 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찰관의 말이 각인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즈음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꼭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말한다.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멋진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걸까?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다. 실제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은 많지 않다. 또 꿈을 직업으로 이루었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현재를 망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

나는 직업을 꿈과 연결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요즘 세태를 생각했다. 그리고 직업이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사람들이 느끼는 ‘자아실현’과 ‘직업’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범죄 심리 분석관이, 아이돌 가수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 꿈과 멀어졌다고 사표를 ‘꿈’꾸는 수많은 회사원에게, 후배와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그것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가 만든 병일지도 모르겠다고, 무엇보다 자아 성취는 일이 끝난 후 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앤이 내게 물었어도 아마 같은 대답을 했을 거다. 이제 나는 “너의 꿈을 너의 직업으로 이뤄라!” 같은 말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직업은 적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래의 직업은 자아실현과 거리가 먼 셈인 것이다. 나는 버리고 떠나는 삶을 존중하지만, 이제는 버티고 건디는 삶을 더 존경한다.

이 시대가 너무 ‘나’를 강조하다 보니 그것이 자기애적인 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 역시 끝내 지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만약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이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나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조심스럽게 ‘잘하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잘하는 것을 오래 반복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으므로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외에 자기 일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태도’란 그 일을 좋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한때의 빛나는 재능이 훗날의 아픈 족쇄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 왔다. 자신의 꿈을 직업적인 성취로 이루지 못했다고, 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실패자란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으면 한다. 믿거나 말거나 나로 말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자기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의 지독한 불행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 세상에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 인간은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꿈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5. <보기>의 ①~⑥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 중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단, ‘삶’과 ‘꿈’에 대한 글쓴이의 의도를 고려할 것.)

|           |                     |         |           |
|-----------|---------------------|---------|-----------|
| <보 기>     |                     |         |           |
| ‘삶’       | ( ① ), ( ② ), ( ③ ) |         |           |
| ‘꿈’       | ( ④ ), ( ⑤ ), ( ⑥ ) |         |           |
| ㉠ 가슴 뛰는 일 | ㉡ 경찰관               | ㉢ 레드먼드  | ㉣ 사연      |
| ㉤ 실패자     | ㉥ 자아실현              | ㉦ 잘하는 일 | ㉧ 초록 지붕 집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⑥ : \_\_\_\_\_

■ 예시 답안

답 : ①, ②, ③ : ㉡ ㉢ ㉦ / ④, ⑤, ⑥ : ㉠, ㉣, ㉥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과 ④, ⑤, ⑥을 각각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내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①, ②, ③과 ④, ⑤, ⑥을 각각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내에서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li> <li>- 5개가 정답이면 8.4점</li> <li>- 4개가 정답이면 6.8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5.2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3.6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0점</li> </ul> | 10 |

## 문항 6

[문제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개의 신경 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 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 세포와 신경 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 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이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1921년 오토 뢰비 박사는 미주 신경이 붙어 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 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각각 링거액에 담고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 연결했다.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 있는 미주 신경을 자극하자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도 느려졌다. 이를 통해 오토 뢰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 있는 미주 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나와 링거액을 통해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셈이다. 미주 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미주 신경 물질’이라 명명하였다. 이후 이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밝혀졌고, 현재까지 뇌에서는 마흔 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 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2만분의 1밀리미터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다음 신경 세포막에 다다른다.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하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 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연접 틈에서 신경 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이온 통로가 열린다.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양이온,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음이온이라고 한다.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또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다.

평상시 신경 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만일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 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하게 된다. 반대로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세포의 음전하가 커지게 되어 신경 세포의 흥분이 억제된다. 신경 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글루탐산, 신경 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단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여단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경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여단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여단개의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도 많고, 그 각각에 맞는 수용체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단개에 자동 수리 기능까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여러 가지 신경 정신 질환이 발생한다.

6. <보기>는 뒷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뒷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보 기>

오토 뢰비 박사는 개구리의 미주 신경을 자극하는 실험을 통해 ( ① )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 ① )은/는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에 저장되어 있다가 신경 정보가 전기 신호로 신경 섬유 말단에 도달하면, 말단부에 있는 ( ② )이/가 세포막과 결합하면서 방출되고, 그 다음 신경 세포막에 있는 ( ③ )와/과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즉,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으로 한 개의 신경 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 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이 결합으로 인해 ( ④ )이/가 열리는데, 나트륨, 칼슘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 세포가 흥분하고, 염소 등의 음이온이 들어오면 흥분이 억제된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가 감소하면서 신경계의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 ⑤ )을/를 지니게 된다.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예시 답안

답 :

- ① 신경 전달 물질
- ② 소포체
- ③ 수용체
- ④ 이온 통로
- ⑤ 항상성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 ①, ②, ③, ④, ⑤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br>- ①, ②, ③, ④, ⑤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함<br>-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br>-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10점 |
|       | - 5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br>- 4개가 정답이면 8점<br>- 3개가 정답이면 6점<br>- 2개가 정답이면 4점<br>- 1개가 정답이면 2점                                                                                  |     |

## 문항 7

[문제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게 마련이다. 어린 시절 종이 가 너털너털해지도록 읽었던 동화부터,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묵직한 충격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 준 책이 있다. 학문의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 읽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위해 책을 펼치기도 한다. 가 보지 못한 곳, 겪어 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다.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흔히 정독(精讀)과 다독(多讀)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된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 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한다.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홍석주(洪奭周, 1774~1842)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 그는 바쁜 벼슬살이의 땀 뻘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과 안채의 베개 밑에 두고 읽는 책이 달랐다. 사랑채에 있을 때 곁에 두고 읽는 책은 또 따로 있었다.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는 것인데,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여가에 읽는 책이 다 달랐던 셈이다.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 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근야근 폭 넓게 읽었다.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 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만한 날은 없다.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이익(李穡, 1681~1763)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그는 질서법(疾書法)이라고 불렀다. 질서는 재빨리 베껴 쓴다는 말이다.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 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그는 사서삼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과 조사해 찾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시경질서』, 『논어질서』 같은 책으로 펴냈다.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몇 만 번씩 숫자를 헤아려 가며 되풀이해 읽었다.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1억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독서 방법 중 하나이다.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 불량에 걸린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도 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

7.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4개 찾아 각각의 기호를 쓰시오.

< 보 기 >

- ㉠ 독서를 통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 ㉡ 옛사람들은 다독법(多讀法)보다 정독법(精讀法)을 통해 책을 음미하려 하였다.
- ㉢ 홍석주는 탐구할 필요가 있는 주제는 관련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 ㉣ 목적에 맞는 글이어도,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는 글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 ㉠ 이익은 독서 중 의문이 들면, 그 의문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것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 ㉡ 김득신은 몇 개의 문장을 수없이 되풀이해 암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백이열전』의 내용을 완전히 익혔다.
- ㉢ 훌륭한 독서를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독서법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 ■ 예시 답안

답 :

- ① ㄱ
- ② ㄷ
- ③ ㄹ
- ④ ㅁ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①, ②, ③, ④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가 정답이면 10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7.5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5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5점</li> </ul> | 10점 |

문항 8

[문제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흔  
이에 이샤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늌다 말스도  
몰다 니르고 가늌닛고.  
어느 구슬 이른 브루매  
이에 더에 떠러딜 님근,  
흔든 가지라 나고  
가는 곧 모르론더.  
아야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도(道) 닻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나)

비 갠 긴 독엔 풀빛 고운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를 건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보태나니  
- 정지상, 「송인(送人)」

8. <보기>는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기호를 (가), (나) 중에서 골라 쓰시오. (단, (가)와 (나)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기호를 모두 쓸 것.)

< 보 기 >

| 표현상의 특징                              | 해당 작품 기호 |
|--------------------------------------|----------|
| 자연물에 빗대어 이별의 원인을 제시함.                | ( ① )    |
|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염원을 드러냄.               | ( ② )    |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 ③ )    |
| 과장적 발상과 표현을 통하여 이별의 고통을 강조함.         | ( ④ )    |
|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병치하여 이별의 순간을 형상화함. | ( ⑤ )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답 :

① 가

② 가

③ 가, 나

④ 나

⑤ 나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가     | 2  |
| ②     | 가     | 2  |
| ③     | 가, 나  | 2  |
| ④     | 나     | 2  |
| ⑤     | 나     | 2  |

문항 9

[문제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향의 고운 태도 단정하다. 앓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갓 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재계하고 앓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꾸민 것도 없는 천연한 절대佳人(佳人)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운간명월(雲間明月)이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 수중지연화(水中之蓮花)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를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월궁항아(月宮姮娥)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이때 춘향이 ( ① )을/를 잠깐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 천하의 호걸(豪傑)이요, 세상의 기이한 남자라. 이마가 높았으니 젊은 나이에 공명을 얻을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라. 흠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모아 단정히 앓을 뿐이로다. 이 도령 하는 말이,

“옛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했으니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뇨?”

“성은 성(成)가웁고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이 도령 거동 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연세 들어보니 나와 동갑인 이팔이라. 성씨를 들어보니 천생연분(天生緣分)일시 분명하다. 혼인하여 좋은 연분 만들어 평생 같이 즐겨 보자. 너의 부모 모두 살아 계시냐?”

“( ② )(이)로소이다.”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올해 육십 세를 맞은 나의 모친이 무남독녀(無男獨女)라, 나 하나요.”

“너도 귀한 딸이로다. 천생연분(天生緣分)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 보자.”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고운 음성으로 여쭙오되,

“충신(忠臣)은 ( ③ )(이)요 열녀(烈女)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심(一片丹心) 이내 마음, ( ④ )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이 도령 하는 말이

“네 말을 들어 보니 어찌 아니 기특하랴.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 ⑤ )하리라. 네 집이 어드메냐?”

- 「춘향전」

9. 윗글의 문맥을 고려하여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의 ㉠~㉥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 보 기 >

㉠ 금석맹약(金石盟約)

㉡ 독수공방(獨守空房)

㉢ 불사이군(不事二君)

㉣ 수작(酬酌)

㉤ 천애고아(天涯孤兒)

㉥ 추파(秋波)

㉦ 출장입상(出將入相)

㉧ 편모슬하(偏母膝下)

㉨ 홍안박명(紅顏薄命)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답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 ④, ⑤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기호 외에 한글이나 한자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나 기호와 함께 어휘를 병기한 경우 철자에 오류가 있으면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가 모두 정답이면 10점</li> <li>- 4개가 정답이면 8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6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4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점</li> </ul> | 10점 |

# 2026학년도 자연계열

## 문항 1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빙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  
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 작자미상

(나) 한숨아 세 한숨아 네 어늬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주 세살장주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저귀 수돌저귀 빙목걸새 썩닥 박고 용(龍) 거북 즈물쇠로 수  
기수기 츠엿는디 병풍(屏風)이라 덜걱 저븐 족자(簇子) | 라 디디글 몬다 네 어늬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좀 못 드러 흐노라

- 작자미상

1. <보기>는 윗글을 읽고 수업 시간에 나눈 대화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쓰시오.

### < 보 기 >

선생님: (가)와 (나)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지요. 사설시조는 시조의 초장/중장/종장 구조를 유지하되 주로  
중장이 자유롭게 길어진다는 특징을 가져요. 먼저 두 작품을 살펴보면 중장에서 제재와 관련한 시어  
를 나열하여 운율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작품의 차이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 먼저 ( ① )의 제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 정서를 막기 위한 수단이에요. 반면  
( ② )의 제재는 내부의 부정적 정서를 밖으로 털어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선생님: 이것으로 두 작품 모두 화자가 부정적 정서를 토로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도출되었네요.  
그렇다면 둘 중 어느 작품이 더 마음에 들었나요?

학생: ‘( ③ )’을/를 의인화한 작품이요. 웬지 화자의 정서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 ④ )’, ‘( ⑤ )’ 두 용언에 보이는 요즘과는 다른 의문형 종결어미도 재미있어요.

### < 조 건 >

- ①, ②: 작품을 골라 기호를 쓸 것.
- ③~⑤: 시어를 찾아 윗글의 표기대로 쓸 것.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답 : ① - (나) // ② - (가) // ③ - 한숨 // ④ - 드러온다 // ⑤ - 묻다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 ④, ⑤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④, ⑤ 항목의 답은 순서를 바꾸어도 정답으로 인정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가 모두 정답이면 10점</li> <li>- 4개가 정답이면 8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6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4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점</li> </ul> | 10점 |

## 문항 2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우연히 ‘그’와 만나 대화를 나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 (중략)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릴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 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밭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꺼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 병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 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가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은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울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다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던 말씀이요?”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준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지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뚝뚝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기요?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 기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뚝뚝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 현진건, 「고향」

\*구주: 일본의 ‘규슈’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 2.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과 감상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 < 보 기 >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에 황폐화된 조선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의 이야기를 액자식 구성의 서사 구조로 그려 낸다. 하나의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감싸는 구조라 내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 ① )’의 이야기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를 주고 있다. 그 인물의 잔인하고 끔찍한 삶의 표현인 ‘( ② )’은/는 개인의 삶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작품의 주제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기차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두 인물은 ‘( ③ )’을/를 매개물로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나’는 ‘그’에게서 ‘( ④ )’을/를 포착한다. ‘그’의 고향은 ‘( ⑤ )’이/가 된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대목에서 ‘무덤’처럼 피폐해지고 무너진 조선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의 처지가 민족의 현실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의 시대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나’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면서 일제라는 시대적 비극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임이 드러난다.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 ① 그
- ② 악착한 운명
- ③ 정종 // 술
- ④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 ⑤ 폐동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그                                       | 2  |
| ②     | 악착한 운명                                  | 2  |
| ③     | 정종/ 술<br>- 둘 다 정답 인정함                   | 2  |
| ④     |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br>- 수식어구 포함해도 정답 인정함 | 2  |
| ⑤     | 폐동                                      | 2  |

**문항 3**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옥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옥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3. <보기>는 위글에 대한 설명과 감상이다. 맥락을 고려하여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조건>에 따라 쓰시오.

— < 보 기 > —

이 시는 일본 유학 시절에 독립 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복역하다가 광복을 앞두고 운명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다. 이 시를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감상할 수 있다.

| 시에 대한 감상                                    | 해당 시행의<br>첫 두 어절 |
|---------------------------------------------|------------------|
| 청각적 이미지를 토대로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어.               | (    ①    )      |
| 하강적 이미지로 현재 자신의 고립감과 우울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 (    ②    )      |
| 대조적 이미지를 병치하여 시대 인식과 그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어.     | (    ③    )      |
| 화자는 현재 자신의 일상이 구시대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어. | (    ④    )      |
| 화자는 마침내 자신과의 화해에 다다라 분열된 자아와의 합일을 이루고 있어.   | (    ⑤    )      |

< 조 건 >

- ①~⑤: 해당 시행을 찾아 첫 두 어절을 쓸 것.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답 :

- ① 창밖에 밤비가
- ② 나는 다만(,)
- ③ 등불을 밝혀
- ④ 늙은 교수의
- ⑤ 눈물과 위안으로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창밖에 밤비가                          | 2  |
| ②     | 나는 다만(,)<br>- 쉼표 작성하지 않아도 정답 인정함 | 2  |
| ③     | 등불을 밝혀                           | 2  |
| ④     | 늙은 교수의                           | 2  |
| ⑤     | 눈물과 위안으로                         | 2  |

문항 4

[문제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릇 임금으로서 돈을 만들고 화폐를 제정함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시책입니다. 었드려 관찰해 보건대 우리 해동(海東)은 삼한(三韓)이 통일하기 이전에는 그 풍속이 소박하여 예악(禮樂)이 먼저 발전하였고, 나라 풍속이 검소하여 사치를 몰랐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신라의 대승통(大僧統) 자장(慈藏) 율사께서 상소하여, 우리나라 의복의 풍속이 너무 남루하므로 당나라의 제도를 쓰자고 간청하자 국왕이 이를 허락하시어 드디어 이제까지의 의복을 버리고 의관(衣冠)을 숭상하여 엄연히 지금에 이르도록 아주 흥성하고 아름다운 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었드려 생각하옵건대, 우리나라는 하늘의 뜻을 따라 혁명하여 삼한을 통일한 뒤로 예의를 더욱 새로이 하고 법도를 밝혔으며, 의복에 제도를 두고 수레에도 제도를 두어 문물로써 기강을 바로잡고 바른 지혜로써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천하를 다스리니, 모두가 삼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의관법을 한 번 변경하여 오래될수록 더욱 새로워진다면 돈을 정하는 법도 어찌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신은 어리석어 감히 자장 스님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직 성인과 시기는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아!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거문고와 비파가 고르지 않은데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께서는 덕은 삼왕(三王)보다 뛰어나시고 도는 이제(二帝)와 비등하시며, 그 공은 유한(劉漢)보다 높고 제도는 당나라를 이었으니, 모든 나라가 이곳을 향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편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곡식으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이 뒤에 누구를 기다려 바르게 하겠습니까. 무릇 돈이란 그 몸은 하나이면서도 그 뜻은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錢]의 바탕은 둥글고 구멍은 모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둥근 것은 하늘을 본떴고 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으로 이른바 덮고 실으며 돌고 돌기를 끊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泉)으로서 통행하여 흘러 퍼지는 것이 마치 샘물처럼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포(布)로서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상하에 두루 보급되어 영원히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도(刀)로서 이것을 잘 이롭게 놀리는 데 따라 빈부가 생기며 날마다 써도 무디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설명하옵건대 지금 과거의 환법(圓法)의 공을 본받으면 실익이 그 배가 될 것이고, 혹 결단코 행하면 몇 가지 이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히 대략 진술하옵니다.

무릇 쌀을 화폐로 사용한다면 멀고 가까운 곳을 따라 교역할 때에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의 사용은 수량(銖兩)의 가벼운 것이지만 헛되이 소모하는 쪽은 천균(千鈞)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곧 수백 리 밖에서 쌀을 운반할 때에 말 한 마리에 겨우 두 섬밖에 실을 수 없을 뿐더러 열흘이란 기간이 걸리므로 여기에 사람과 말의 힘이 이미 절반 이상 소모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철을 맞아 가난한 백성들이 소나 말이 없으면 직접 등에 지고 가다가 추위와 더위에 병들어 길에 쓰러지는데 그 고통과 불편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돈을 사용하여 사람이 지거나 말에 신는 고통을 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첫째 이점입니다.

대개 먹는 것은 백성들이 하늘같이 여기는 바, 고아나 과부 등 곤궁한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은 오직 쌀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화폐로 삼으면 마음씨 좋지 못한 교활한 무리나 이익을 탐하는 간교한 무리가 쌀에 모래흙과 먹을 수 없는 쌀을 섞게 될 것이며, 또한 작은 되를 큰 되로 속이고 가벼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무게를 속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량하고 의탁할 곳 없는 백성들은 겨우 몇 되나 몇 홉을 얻어 그것을 키에 까불고 물로 일어 가리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10분의 4, 5가 됩니다. 간교한 무리를 비록 중벌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금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돈을 사용하면 간교한 무리를 막고 곤궁한 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둘째 이점입니다.

국가에서 녹을 고르는 제도에서도 쌀을 봉급으로 주게 되면 창고의 저축은 1년 분밖에 보관해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양반(兩班)이 받기를 청하면 오직 다른 지방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때 독축은 지극

히 엄중하며 쌀의 운반은 매우 고된 일입니다. 혹은 바람이나 서리로 운반이 어려워지거나 흉년이 들 때, 하급 관리 집에서는 여름만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권세를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판로의 형편을 따져 곡식을 내놓아 곱절이나 이익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 곤궁하고 탐관오리들은 더욱 날뛰며, 반대로 청렴하고 품행이 단정한 선비들은 달리 얻는 것이 없으므로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부양할 때 오로지 봉급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다시 매향의 반을 잡곡과 바꾸려고 짊어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행상(行商)과 같습니다. 이에 과감히 환법(圓法)을 시행하되 봉급의 반을 돈으로 지급하면 독촉을 줄이고 흉년에 대비할 수 있으며, 권세 있는 호족의 날뛸을 억누르고 청렴하고 결백한 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셋째 이점입니다.

국가의 창고에는 주옥(珠玉)이나 귀패(龜貝), 금은이나 서상(犀象) 같은 보물을 제외하고 그 외에 저축하는 것은 쌀과 포목뿐입니다. 대개 포목은 오래 두면 상하게 되고, 쌀 역시 오래 두면 썩는 손실이 있으며, 또한 좀먹고 습기가 차며 비가 새고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새 창고에 가득 찼던 작년의 공포(貢布)가 몇 번 습기에 차서 상한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가리면 백에 열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화재 때에는 한 무더기에 불이 나자 백 무더기가 함께 불이 붙어 순식간에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돈을 사용한다면 저장하는 데도 견고하여 특별히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이 그 넷째 이점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영명하신 지혜로 혼자 결단하시어 과감히 실행하시면 그것은 특별히 국가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세 백성의 복이 될 것입니다. 혹 조정에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자가 있으면, 또 신의 건의를 조정의 공론에 부치어 공경대부(公卿大夫)들에게 마땅함과 마땅하지 않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간절히 저 마원(馬援)을 본받아 전하 앞에서 열세 가지 문제를 풀어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만 감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 4. <보기>는 윗글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보 기>

| 화폐의<br>의미    | 돈[錢]      | 형상      |
|--------------|-----------|---------|
|              | ( ① )     | 보급      |
|              | ( ② )     | 유통      |
|              | ( ③ )     | 이용      |
| 화폐 제정의<br>이점 | 물물교환의 문제점 | 화폐의 이점  |
|              | 운반(運搬)    | 휴대의 경량성 |
|              | ( ④ )     | 교환의 공정성 |
|              | ( ⑤ )     | 가치의 안정성 |
|              | 저장(貯藏)    | 보관의 용이성 |

㉠ 녹(祿)

㉡ 도(刀)

㉢ 부정(不正)

㉣ 천(泉)

㉤ 포(布)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답 :

① ㉤

② ㉣

③ ㉡

- ④ ㉔  
⑤ ㉕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⑤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①~⑤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li> <li>- 4개가 정답이면 8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6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4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점</li> </ul> | 10점 |

## 문항 5

[문제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까지 경제학은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 자본이 사회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물질·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경제학에서도 사회 자본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 자본을 잘 갖춘 나라들의 경제 발전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의 국가들이라고 해도 경제 발전에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규명하다 보니, 사회 전체에 공유된 가치의 차이가 차별적인 요소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자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신뢰’이다. 똑같은 물질·인적 자원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 안에 신뢰가 부족하면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진다.

사회 자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리 소통망에 주목하게 된 데에는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 로버트 퍼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는 자기의 저서 『나 홀로 볼링』에서 미국 사회의 사회 자본이 쇠퇴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단체 활동 분야에서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졌다. 공적인 부분에서든 사적인 부분에서든 남과 어울려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들이 수치적으로 뚜렷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인과 어울리는 일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대표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혼자 볼링 치기’이다. 퍼트남은 이것을 미국 사회에서 개인화가 심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포착했다. 퍼트남은 이처럼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혼자 놀기를 즐기게 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의미 등을 분석하면서 사회 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강조한 사회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에서 발생하는 사회 관계망,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 자본이 줄어든 사회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반면,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 사회 자본이 살아나게 된 사회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퍼트남의 생각에 실마리를 얻어 많은 경제학자가 사회 자본의 경제적 함의를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 경제 발전이 더 용이할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든 사회 자본이 긍정적인 영향, 즉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된 것이다.

그래서 사회 자본 연구자들은 누리 소통망 활동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누리 소통망은 이용자가 기존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서로 친구를 맺고 정보를 나누며 친교를 도모하는 장을 제공한다. 인터넷에서라도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인적 관계망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누리 소통망 활동이 이용자의 인적 관계망 활동을 향상시켜 사회 자본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사람들의 누리 소통망 활동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과연 누리 소통망 활동은 사회 자본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 만약 도움을 준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까, 사회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까?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독일 사회 경제 연구소(GESIS)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누리 소통망 활동은 분명 사회 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누리 소통망 이용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집단에서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측면은 크지만,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못하는 점도 밝혔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누리 소통망 이용이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즉, 누리 소통망의 이용이 동질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결속적 사회 자본은 강화하지만, 이질적인 집단 간에서 나타나는 교량적 사회 자본은 더 떨어뜨린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누리 소통망의 이용이 외부인과 접촉면은 더 늘렸지만, 누리 소통망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된 것으로 분석한다.

사회 자본의 이런 상충적인 특성은 이미 많이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거꾸로 집단 외부인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강화되는 것은 교량적 사회 자본이나 연결적 사회 자본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과연 이러한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나’와 타자의 차이가 더 도드라지고, 내가 소속된 집단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적 차원으로 본다 해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결속적 사회 자본이 중요하지만, 사회 활동을 하는 성인에게는 교량적 사회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성인들의 누리 소통망 활동이 결국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는 유대감이 강화되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이나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유대감이 깊어져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못 믿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누리 소통망에서 친구를 선별하게 되는 것도 혹시 이런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

#### 5.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⑥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 <보 기>

- 사회 자본에 주목하는 경제학은, 사회적 신뢰도를 제외한 조건이 같은 압국과 을국 중 압국의 경제가 더 발전했다면 압국의 사회적 신뢰가 더 높다고 본다.
-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 자본이 줄어든 사회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개인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여 사회 자본이 확충되면 ( ① )이/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 사회 자본 연구가들에 따르면, 사회 자본은 개인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누리 소통망 활동에서 집단 내부의 ( ② )이/가 강화되면 ‘나’와 ‘타자’의 구별이 뚜렷해져 집단 외부인에 대한 ( ③ )이/가 커질 수 있다. 이는 ( ④ )(이)나 ( ⑤ )의 약화로 이어지기 쉽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 효과가 사회 전체에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 교량적 사회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성인들의 누리 소통망 활동은 개인적 차원의 ( ⑥ )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할 수 있다.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⑥ : \_\_\_\_\_

#### ■ 예시 답안

답 :

- ① 공공의 선  
 ② 결속, ③ 불신  
 ④ 교량적 사회 자본, ⑤ 연결적 사회 자본  
 ⑥ 경제적 이득

**풀이** 제시문은 누리 소통망이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퍼트남은 사회 자본이 줄어든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사회 자본이 확충된 사회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 자본 연구자들은 누리 소통망의 이용을 통한 인적 관계망 활동의 향상이 사회 자본의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바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회 자본의 증가를 통한 집단 내부의 결속 강화는 오히려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 교량적 사회 자본이나 연결적 사회 자본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가장 중요한 반면, 성인에게는 교량적 사회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누리 소통망의 활동은 특정 집단과의 유대감만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성인들의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⑥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①, ②, ③, ⑥은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④와 ⑤는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①과 ⑥은 각각 1set로 보고, ②와 ③이 1 set, ④와 ⑤가 1 set로 구성하여, 각 set가 모두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set가 모두 정답이면 10점</li> <li>- 3 set가 모두 정답이면 7.5점</li> <li>- 2 set가 정답이면 5점</li> <li>- 1 set가 정답이면 2.5점</li> </ul> | 10점 |

## 문항 6

[문제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생물학적 성차에 관한 지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묶을 수 있다. 첫째, 차이의 근거를 뇌에서 찾는 두개골학과 뇌 신경 생리학이다. 둘째는 차이의 근거를 진화에서 찾는 사회 생물학이다. 마지막으로 차이의 근거를 성호르몬에서 찾는 성 내분비학이다.

두개골학은 성차의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한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두개골학에 기반을 둔 성차 논의의 핵심 전제는 ‘여성의 지적 열등성은 열등한 두뇌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개골학이 처음에 제시한 기준은 두개골의 크기나 뇌의 질량이었다. 평균적으로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보다 크기가 작고, 질량도 덜 나갔기 때문에 두개골에 근거해 여성의 열등함을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치명적인 반격에 맞닥뜨린다. 이른바 ‘코끼리의 문제’이다. 뇌의 절대적인 크기나 질량이 우월함과 열등함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큰 코끼리가 만물의 영장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상대 수치, 즉 몸집에 대한 두개골의 크기 혹은 체중에 비례한 뇌의 질량이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그 증거는 ‘틀린 증거’로 간주되었고, 상대 수치 기준은 즉시 기각되었다.

1900년대 초 이후 두개골학은 사라졌지만 개체나 집단의 우열을 뇌에서 찾고자 하는 전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뇌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뇌 자기 공명 영상[MRI]에 대한 많은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인지 능력이나 감정적 성향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뇌의 좌우 반쪽의 활동 양상이 각각 다르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남성은 우뇌 지배, 여성은 좌뇌 지배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뇌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중첩되어 있거나 애매하다. 또한 성별 유사성도 많이 발견된다.

사회 생물학은 성차의 생물학적 기초를 찾으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작업이다. 사회 생물학에서 말하는 성차는 인간의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보여 주는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그러니까 진화론적 기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 생물학에서는 먼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나 특성을 정당화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는 맥락에 이미 사회적 사실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둔 채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고, 이 자연적 사실이 다시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설명 구조를 갖게 되는 식이다. 이때 처음 단계에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자연적 사실을 발견한 맥락은 여간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다.

사회 생물학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동물의 행동, 그러니까 자연적 사실의 ‘발견’으로 제시되는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회적 사실을 기초로 ‘해석’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발견’이 전제한 사회적 사실은 결국 자연적 사실로 정당화되는 사회적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성호르몬은 20세기 초에 발견된 물질로, 성차에 관한 기존의 설명을 화학 물질의 측면에서 재구성했다. 성호르몬 연구 초기인 1920년까지는 한 가지 성에는 한 가지 성호르몬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921년부터 교차 발견, 즉 남성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몸에는 여러 성호르몬이 혼재하며, 그 성호르몬들은 구조가 비슷해 간단한 화학 반응으로도 서로 전환될 수 있다.

특정 호르몬의 존재 유무로 성차를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호르몬의 조절 특성으로 차이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여성의 호르몬 조절 메커니즘이 주기성을 갖는 데 비해 남성은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주기성은 히스테리와 연관된 것으로 설명되었고 사회성 결여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성호르몬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르몬은 시간 주기를 갖는다. 성장 호르몬과 생식선 자극 호르몬은 24시간 주기로, 잠든 직후 그날의 최고치를 분비한다.

성호르몬을 이용해 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성에 하나의 성호르몬’이라는 전제에서 붙여진 이름인

데, 그 이론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그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분법적 성차라는 신념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여 준다.

우리가 성차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접할 때 주의해서 따져 보아야 할 점은 ‘문제 선택’이다. 즉, 그러한 지식의 생산과 확대, 그리고 대중의 수용이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 6. <보기>는 뒷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뒷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 <보 기>

19세기부터 이어진 성차 연구는 생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가장 초기의 연구인 두개골학은 두개골의 크기나 ( ① )의 질량 차이를 근거로 여성의 지적 열등성을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 ② )’(으)로 불리는 반박 논리 및 상대 수치 기준의 오류로 인해 설득력을 잃었다.

이후 ( ③ )은/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보이는 행동의 차이를 ( ④ )의 결과로 설명하며, 그러한 생물학적 차이를 통해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려 했다.

한편, 성 내분비학은 한 가지 성에 하나의 ( ⑤ )만 존재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발전했으나,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여러 ( ⑤ )이/가 혼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이분법은 흔들리게 되었다.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답 :

- ① (두)뇌
- ② 코끼리의 문제
- ③ 사회 생물학
- ④ 진화
- ⑤ 성호르몬

**풀이** 제시문은 남녀의 성차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했던 다양한 탐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먼저, 두개골학은 성차의 근거를 두개골의 크기와 뇌의 질량에서 찾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지적 열등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뇌의 크기가 지적 우열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코끼리의 문제’와, 여성의 상대 수치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결과로 인해 논리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후 등장한 사회 생물학은 성차를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지니고 있는 행동의 생물학적 근거, 즉 진화론적 배경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 생물학은 동물의 행동을 인간의 진화적 기원으로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질서나 특성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성 내분비학은 남녀의 몸에 여러 성호르몬이 혼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단순히 호르몬의 존재 유무가 아닌 호르몬의 조절 방식과 주기성에서 성차를 설명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 ④, ⑤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①, ②, ③, ④, ⑤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li> <li>- 4개가 정답이면 8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6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4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점</li> </ul> | 10점 |

# 2025학년도 인문계열

## 문항 1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未亡人)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告)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재(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를 충충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北京)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쌍을 주시거늘, 친정(親庭)과 원근(遠近)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쌍쌍이 나눠 주고, 그 연분(緣分)이 비상(非常)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保全)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지 아니하리요.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다.

나의 신세 박명(薄命)하여 슬하(膝下)에 한 자녀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家産)이 빈궁(貧窮)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잊고 생애(生涯)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永訣)하니, 오호 통재라. 이는 귀신(鬼神)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철중(鐵中)의 쟁쟁(錚錚)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百代)의 협객(俠客)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추호(秋毫)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緋緞)에 난봉(鸞鳳)과 공작(孔雀)을 수놓을 제, 그 민첩하고 신기(神奇)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人力)이 미칠 바리오.

### (중략)

오호 통재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無罪)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누를 한(恨)하며 누를 원(怨)하리오. 능란한 성품과 공교(工巧)한 재질(才質)을 나의 힘으로 어찌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儀形)은 눈 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稟才)는 심회가 삭막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後世)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同居之情)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百年苦樂)과 일시생사(一時生死)를 한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 작자 미상, 「조침문」

1. <보기>는 윗글을 읽고 감상을 나눈 대화이다. 맥락을 고려하여 ①~③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나 구절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 기>

학생 1: 바늘이 부러진 날의 슬픔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마치 죽은 사람을 기려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문(祭文)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 ‘( ① )’은/는 제문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단어지.

학생 2: 관용적 표현은 그것 말고도 많아. 예컨대 ‘( ② )’(이)라는 두 어절의 표현은 ‘여러 후보 중에서 적임자로 선택된 명을 받들어’라는 의미잖아?

학생 3: 맞아. 이 글의 작가는 아무래도 교양이 있는 양반층의 여성인가 봐. 고사를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 ‘( ③ )’(이)라는 두 어절의 표현은 바늘이 부러진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뜻이야.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 ■ 예시 답안

- ① 유세차
- ② 낙점을 무르와
- ③ 백인이 유아이사(라)

**풀이** 제시문은 바늘을 의인화하여 제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고전 수필 「조침문」이다.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문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에서 ‘동지상사’는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보내던 동지사(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의 우두머리’이며, ‘낙점’은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마땅한 대상을 고름’을 뜻하는 말이고, ‘무르와’는 ‘명을 받들어’의 뜻이다. ‘백인이 유아이사(由我而死)’는 ‘백인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뜻으로 고사를 인용하여 바늘이 부러진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비유적 표현이다.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가 모두 정답이면 10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7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4점</li> </ul> | 10점 |

## 문항 2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2. <보기>는 특정 시행의 의미와 표현방식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③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뒷글에서 찾아 해당 시행의 첫 두 어절만 쓰시오.

<보 기>

| 시행의 첫 두 어절 | 시행의 의미와 표현방식                                                                |
|------------|-----------------------------------------------------------------------------|
| 저 왕궁       | 권력자들의 부조리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 ①          |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통해 화자의 속된 모습을 부각한다.                                             |
| ②          | 은유법을 통해 화자가 사소한 일상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
| ③          | 돈호법, 열거법, 설의법을 사용하고, 화자의 모습을 보잘것없는 자연물과 비교하여 자신의 왜소함과 웅졸함에 대한 자조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 예시 답안

- ① 웅졸하게 분개하고
- ② 떨어지는 은행나무
- ③ 바람아 먼지야

**풀이** 제시문에 인용된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여러 가지 표현법과 표현 방식이 활용된 텍스트이다. 1연의 4행에서는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통해 화자의 속된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연의 5행은 은유법을 통해 화자가 사소한 일상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돈호법, 열거법, 설의법을 사용하고, 화자의 모습을 보잘것없는 자연물과 비교하여 자신의 왜소함과 웅졸함에 대한 자조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은 마지막 7연의 2행이다.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개가 모두 정답이면 10점</li><li>- 2개가 정답이면 7점</li><li>- 1개가 정답이면 4점</li></ul> | 10점 |

문항 3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스물다섯 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스물다섯 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 사관 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군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 “아니오,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 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 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꿈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중략)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율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낯 율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데데 정말 그러겠지요?”

㉣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다꾸앙과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 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안은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다 지쳐 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 버렸단 말야, 악센트 말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춤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3. <보기>는 윗글에 대한 감상이다. ①, ②, ④는 ㉠~㉣에서 부합하는 구절의 기호를 각각 찾아 쓰고, ③은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인물을 쓰시오.

<보 기>

「서울 1964년 겨울」은 우연히 만난 세 남자가 하룻밤을 보내면서 벌어지는 일을 서술하며 현대 도시인들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적 연대감의 상실을 보여 준다. 등장인물인 ‘나’, ‘안’, ‘사내’는 모두 작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이 같은 인물의 익명화는 도시인의 개인주의와 단절, 개성 상실 등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① 인물들이 서로 공감대를 찾지 못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장면, ② 서로 다른 상태의 인물들과 그들 주변의 풍경을 장황하게 그려 내는 대목 등이 파편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어 특히 인상적이었다. 가장 마음이 쓰였던 인물로는 ( ③ )을/를 꼽고 싶다. ④ 타인과의 교감과 소통을 지향하였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 ③ )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 예시 답안

- ① ㉠  
② ㉡  
③ 사내(or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  
④ ㉣

**풀이** 제시문은 김승옥의 단편 「서울 1964년 겨울」의 일부이다. ㉠에서 ‘나’와 ‘안’이 자기소개를 마치고 마땅히 할 얘기가 없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 경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은 한 문장 안에 서로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동화되지 못하는 세 인물의 모습을 거리의 풍경과 함께 묘사한다. 따라서 ㉠과 ㉣은 도시 속 파편화된 개인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작중에서 ‘사내’는 서로 단절된 ‘나’와 ‘안’과 달리 유일하게 타인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인물인데, ㉣과 같이 ‘나’와 ‘안’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함께 있어 달라 간청하지만, 나머지 두 인물이 이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사내와 교감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br>-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br>-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10점 |
|       | - 4개가 모두 정답일 경우 10점<br>- 3개가 정답일 경우 7.5점<br>- 2개가 정답일 경우 5점<br>- 1개가 정답일 경우 2.5점                               |     |

문항 4

[문제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돌 위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아 여기 태고(太古)적 바다의 소리 없는 물보래가 꽃잎을  
적신다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  
다

- 조지훈, 「화체개현(花體開顯)」

(나)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4. <보기>는 윗글에 대한 감상이다. 맥락을 고려하여 ①~③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가)와 (나)는 우주와 생명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유 방식을 보여 준다. 시적 화자의 경험을 통해 생명이 순환되는 원리에 집중하고 있는 시는 ( ① )이며, 시적 화자가 발견한 생명 탄생의 순간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시는 ( ② )이다.

한편, (가)와 (나)는 자연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몰아일체의 경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시상 전개 방식을 드러낸다. (가)에서는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시행을 통해 석류꽃과 시적 화자의 합일을, (나)에서는 ‘( ③ )’(이)라는 시행을 통해 사과와 시적 화자의 합일을 제시하고 있다.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 ■ 예시 답안

- ① (나) 또는 「사과를 먹으며」
- ② (가) 또는 「화체개현(花體開顯)」
- ③ 사과가 나를 먹는다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는 각 3점이며, 기호를 쓰지 않고, 제시문의 시 제목을 쓴 경우에도 정답 처리함</li> <li>- ③은 4점</li> </ul> | 10점 |

**문항 5**

**[문제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의 논리로서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한다. 반면에 경제 논리는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정치인은 사회적 의사 결정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고, 경제인은 공공 정책의 분석·진단·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를 의미한다.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정치 논리만을 주장하거나 모든 경제인이 경제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경제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 속성에 비추어 그들이 각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기초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에 담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정치인은 정책을 투입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경제인은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 경제인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의 자원(예산)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그런데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정치인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 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치인은 공공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또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되도록 객관적·거시적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은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 경제인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면 투자의 유보 또는 취소를 건의할 것이다.

정치인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 둔 상태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치인에게서는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적 기술이 중요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수반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이상에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를 알아보았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앞서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없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5.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표이다. ①~④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        |
|------------|--------------|--------|
| 구분         | 정치 논리        | 경제 논리  |
| 자원 배분의 논리  | ( ① )        | ( ② )  |
| 정책 결정 기준   | ( ③ )의 투입 정도 | 정책의 효과 |
| 정책의 구체화 방법 | 협상, 타협, 교섭 등 | ( ④ )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 예시 답안

- ① 분배(측면) 또는 분배 측면(을) 중시
- ②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
- ③ 자원(예산)
- ④ 전문지식과 분석기술 또는 전문지식 및 분석기술 또는 전문지식, 분석기술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 정답으로 처리함</li><li>- ② 효율성 외에 효율성을 얻고자 하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까지 기술된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li><li>- ④ ‘전문지식과 분석기술’ 외에 ‘전문지식 및 분석기술’ 또는 ‘전문지식, 분석기술’로 기술된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li><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li><li>- 3개가 정답이면 7.5점</li><li>- 2개가 정답이면 5점</li><li>- 1개가 정답이면 2.5점</li></ul> | 10점 |

## 문항 6

[문제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보통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산업화 초기에는 임금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인간적 근로 조건하에 노동자를 방치해 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의 손실을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이다.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 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는 결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를 찬미하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 공정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한 사회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들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였고,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 교섭력을 균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 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에도 잘 나타난다.

애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은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국부론』에서 본래 노동 시장은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인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노동 시장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노동 시장이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경쟁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필요했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 지위의 구조적 비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의 단계로 들어가면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의 구인 경쟁이 나타남으로써, 즉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기 상승 시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기도 했다.

노사 간의 교섭력에도 대등성이 성립하고, 노동 시장에서 경쟁이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임금의 수준은 노동의 생산 기여분인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배의 몫이 증가하고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은 국민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 증가하게 되었다.

6. <보기>의 ㉠~㉣ 중 **애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4개를 찾아 각각의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경쟁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았을 때 노동 조건은 열악해진다.
- ㉡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노동자들의 단결로 완전히 해결이 가능하다.
- ㉢ 노동 공급이 무제한적 단계에서 제한적 단계로 변화하면 노사 간의 교섭력은 대등해질 수 있다.
- ㉣ 경기 상승 시에는 노동 공급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사용자보다 우위가 되기도 한다.
- ㉤ 독점을 줄이고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하면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조건이 만들어 진다.
- ㉥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고, 노동 시장에서 경쟁이 기능할 때 임금 수준은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된다.
- ㉦ 적극적 자유방임은 임금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을 목표로 한다.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 예시 답안

- ① ㉠
- ② ㉢
- ③ ㉣
- ④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li>- ①, ②, ③, ④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li><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ul> | 10점 |
|       | - 4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                                                                                                                                                                                                               |     |
|       | - 3개가 정답이면 7.5점                                                                                                                                                                                                                 |     |
|       | - 2개가 정답이면 5점                                                                                                                                                                                                                   |     |
|       | - 1개가 정답이면 2.5점                                                                                                                                                                                                                 |     |

## 문항 7

[문제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중 가장 먼저 실체가 밝혀진 것은 질량이 가장 작은 전자였다.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된 데는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력에 의해 강하게 속박되어 있어서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한몫했다. 1897년 톰슨은 음전하를 가진 전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속에는 양전하를 가진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원자의 구성 요소이면서 양전하를 가진 존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톰슨은 마치 쿠키 속에 박힌 건포도처럼, 원자 내부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양전하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박혀 있다는 원자 모형을 주장하였다.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는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 알파선을 이용해 톰슨의 원자 모형을 검증했다. 그는 금으로 된 얇은 막에 알파선을 충돌시켰다. 알파선은 전자보다 8,000배나 더 무거우므로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알파선이 전자와 충돌하더라도 거의 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러더퍼드는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달랐다. 대부분의 알파선은 휘어지지 않고 직진했지만, 몇 개는 전자와 충돌했다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각도로 휘어져 나왔다.

그는 알파선이 큰 각도로 휘어지려면 원자 속의 양전하가 아주 작은 부피 속에 모여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양전하가 원자 내부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이라고 하는 중심부에 뭉쳐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실험에서 실제로 원자핵이 존재하고, 이것이 원자 지름의 약 10만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름  $10^{-15}$ 미터인 핵이 지름  $10^{-10}$ 미터의 전자 구름 속에 박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종합 운동장 가운데 모래 한 알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911년 러더퍼드는 새로운 원자모형을 가정하기 시작했다. 양전하가 원자 중심부의 좁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음전하, 즉 전자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만약 전자들이 톰슨 원자 모형처럼 이곳저곳에 분포되어 있다면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전기력 때문에 원자핵 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원자들은 즉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러더퍼드는 태양이 행성을 공전시키듯이, 질량이 큰 원자핵이 전자들을 공전시킨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원자를 태양계의 축소판처럼 다루려는 러더퍼드의 생각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태양계라는 큰 것으로부터 원자라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칭적 형태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양계와 원자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점이 있어 이런 그의 생각은 문제가 있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행성이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의 균형에 의해 행성들이 계속적으로 태양의 주위를 돌 수 있다. 하지만 음전하를 띤 전자들의 행동은 전하를 띠지 않은 물체와는 매우 다르다. 전자는 전자기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원자핵 주변을 돈다면 계속해서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자가 계속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에너지를 잃게 되고, 결국 에너지를 다 잃은 전자는 원자핵 쪽으로 이동하여 원자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안정된 상태로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원자는 매우 안정적이다.

1913년 보어는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자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같이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는데, 이때 전자는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 즉 전자껍질을 돌고 있을 때는 전자기파, 즉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지만 다른 전자껍질로 이동할 때는 두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설로 만들어진 보어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형 역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7.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4개 찾아 각각의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러더퍼드는 질량이 큰 원자핵이 전자들을 공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 톰슨은 양전하가 원자핵이라고 하는 중심부에 뭉쳐 있다고 결론지었다.  
 ㉢ 1897년 톰슨은 원자의 구성 요소이면서 양전하를 가진 구조를 발견하였다.  
 ㉣ 전자가 계속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면 에너지를 잃게 되어 원자핵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 러더퍼드는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을 이용해 톰슨의 원자 모형을 검증하였다.  
 ㉥ 보어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 보어는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를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 예시 답안

- ① ㉠  
 ② ㉡  
 ③ ㉢  
 ④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br>- ①, ②, ③, ④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br>-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br>-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br>- 4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br>- 3개가 정답이면 7.5점<br>- 2개가 정답이면 5점<br>- 1개가 정답이면 2.5점 | 10점 |

## 문항 8

[문제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5세대 통신 기술, 자율 주행 차 등의 신기술에 밀리미터파가 사용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밀리미터파는 30~300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가리킨다.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인데,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면 1헤르츠(Hz), 1천 번 진동하면 1킬로헤르츠(kHz), 100만 번 진동하면 1메가헤르츠(MHz), 10억 번 진동하면 1기가헤르츠라고 한다. 즉 밀리미터파는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인 것이다.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은 파장의 길이가 1~10밀리미터(mm)에 불과한 까닭에 붙여졌으며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도 불린다. 밀리미터파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지만 휴대 전화나 무선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다.

처음 밀리미터파를 실험한 사람은 보스이다. 생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그는 1895년에 가시광선과 자외선 등 빛의 굴절과 회절, 편파에 관한 실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종의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을 이용하여 밀리미터파를 약 1.6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 있었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인데, 그러면 전파의 파장이 짧다.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인 것이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며,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진다.

### (중략)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다른 전파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전에 주로 사용된 마이크로파 신호인 20기가헤르츠 대역의 레이더는 신호의 빔 폭이 넓어서 적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크기는 같되 빔 폭이 더 좁은 레이더가 필요했다. 이 요구는 밀리미터파에 관한 보스의 실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한 계기가 되었다. 신호의 직진성이 마이크로파 대역의 레이더에 비해 큰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밀리미터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이다. 이후에 밀리미터파는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많이 응용되었다.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공기 중의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히면서 에너지 감쇠율이 높아진다. 이것은 늦가을 맑은 날과 안개 낀 날의 빛의 세기가 확연히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밀리미터파도 예외는 아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이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산소에 의해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와 안개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에는 산소 분자가 들어 있다.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에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밀리미터파를 포함한 전자파 신호가 물이나 안개, 구름 등 산소 분자가 있는 매질을 통과할 때 일부 신호가 산소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때 흡수된 전자파는 열로 변해 사라지고 나머지 전자파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신호의 크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밀리미터파는 직진성과 대기 감쇠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파장이 짧아 전자 회로와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으며,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수 기가헤르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유용한 장점이 있다. 근래 들어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밀리미터파 부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고품질 영상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의 전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밀리미터파는 점점 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 (중략)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최근에 밀리미터파가 의료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검사 대상 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탐침에도 사용되고 있다. 밀리미터파는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래의 기술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나노 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밀리미터파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8.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4개 찾아 각각의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밀리미터파는 가시광선, 휴대 전화나 무선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대비 파장이 짧다.  
 ㉡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을 제외한 다른 전자파에 비해 매우 길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다.  
 ㉢ 밀리미터파는 30~300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로, 1초간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다.  
 ㉣ 밀리미터파를 제외한 전자파 신호는 산소 분자가 있는 매질을 통과할 때 일부 신호가 산소에 흡수된다.  
 ㉤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공기 중의 산소나 수증기 등에 의한 에너지의 감쇠율이 높아진다.  
 ㉥ 생물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보스’는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 밀리미터파는 한 번에 멀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용 대역폭이 넓어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 예시 답안

- ① ㉢  
 ② ㉤  
 ③ ㉣  
 ④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br>- ①, ②, ③, ④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br>-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br>-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br>- 4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br>- 3개가 정답이면 7.5점<br>- 2개가 정답이면 5점<br>- 1개가 정답이면 2.5점 | 10점 |

**문항 9**

**[문제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인 지출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들에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 쌓는 일 등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서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들의 혼례를 보자. 이들은 일주일 내내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데에 많은 의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지의 원주민 마을에서도 혼례를 치를 때 소 다섯 마리, 돼지 세 마리, 닭 서른 마리, 전통 음료인 양고나 수십 킬로그램, 의례용 혼수품과 생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잔치를 즐긴다.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인 행위인가?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일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의례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9.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표이다. ①~④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
|--------------------------|-------------------------------------------------------------------------------------------------------------------------------------------------------------------------------------------------------------------------------------------------------|
| 종교적<br>관점에서의<br>합리적 소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문화에서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 쌓는 일을 실천하는 것 등은 ( ① )을/를 쌓기 위함임.</li> <li>- 불교문화에서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 ② )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li> </ul> |
| 친족 중심<br>사회에서의<br>합리적 소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족 중심 사회에서 의례 비용에 지출이 많은 것은 이들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 ③ )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임.</li> <li>- 인도,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들, 피지의 원주민 마을에서 혼례 시 많은 의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 ④ )을/를 다하기 위한 것임.</li> </ul>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 예시 답안

- ① 공덕
- ② 내세
- ③ 위세
- ④ 공동체적 의무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기의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7.5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5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5점</li> </ul> | 10점 |

# 2025학년도 자연계열

## 문항 1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내 자갈 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충당사 지음, 김완진 해독, 「찬기파랑가」

1.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강연자의 설명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 <보기>

강연자: 비유와 상징은 보조 관념을 활용하여 어떠한 사물이나 사상, 개념의 속성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비유는 보조 관념과 원관념이 모두 표면에 나타나지만, 상징은 원관념 없이 보조 관념만 표면에 나타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상징은 하나의 보조 관념이 하나 이상의 의미와 연결되어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유와 다른데요, 특히 상징은 비유와 달리 보조 관념과 원관념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징은 주어진 맥락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동시에 갖겠죠? 이를 토대로 윗글을 감상해 볼까요?

학 생: ‘잣나무 가지’라는 시어에서 ‘높이 솟은 고귀한 것’의 속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기랑’이라는 시어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 ‘잣나무 가지’는 보조 관념, ‘기랑’은 ( ① )이/가 되므로, 이 표현방식은 ( ② )에 해당해요. 또한 ‘흰 구름’이라는 시어에서는 ‘맑고 깨끗함’, ‘욕심 없음’, ‘유유자적함’, ‘흘러감’, ‘허망함’ 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는 보조 관념에 연결할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다양하게 떠올려 본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방식은 ( ③ )에 해당합니다.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 예시 답안

- ① 원관념
- ② 비유
- ③ 상징

### 풀이

이 작품은 화랑인 기파랑을 추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로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 서정성 높은 향가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에서는 ‘잣나무 가지’라는 시어를 통해 ‘높이 솟은 고귀한 것’의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기랑’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잣나무 가지’라는 보조관념을 통해, ‘기랑’이라는 원관념을 드러내려는 비유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의 ‘흰 구름’이라는 시어는 상징이 사용된 시어이다. 이

보조관념에서 독자는 ‘맑고 깨끗함’, ‘욕심 없음’, ‘유유자적함’, ‘홀려감’, ‘허망함’ 등의 함축적 의미를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는 각 3점</li> <li>- ③은 4점</li> </ul> | 10 |

## 문항 2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녁거리가 없지?”

범수는 할 수 없으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서 떼어 입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 “변연한 속이지 물어서는 무얼 허우?”

영주는 풀 죽은 대답을 한다.

“그럼 저 양복이라두 잡혀 오구려.”

“그것마저 잡히구 어떡할라구 그러우?”

“그리 긴하게 양복을 입구 출입을 헐 일은 무엇 있나?”

영주는 그래도 느긋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이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 두었으니 그런 데서 갑자기 오라는 기별이 올지도 모르는 터에 양복을 잡혀 버리면 일껏 된 취직도 낭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만은 행여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한심한 기대를 하는 터였었다.

㉡ “천하 없어두 그건 안 잡혀요.”

“거참 패사스런 성미도 다 보겠네!”

하고 범수는 더 우기려 하지 아니했다.

“정말 큰일 났수! 하두 막막한 때는 죽어 바리기라두 하구 싶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구…… 글썄 왜 학교는 안 보내려 드우?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자식이나 잘 가르켜야지?”

영주는 아이들이 생각나자 가슴을 찢고 싶게 보풀증이 나는 것이다. 범수와 영주 사이에 제일 큰 갈등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인 것이다.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장래의 희망을 거기다 붙이자는 것이다. 그는 하다 못하면 자기가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아이들의 뒤는 댄다고 하고 또 그의 악지로 그만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범수는 듣지 아니했다. 선불리 공부를 시켰자 허리 부러진 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반거충이가 될 것이요, 그러니 그것이 아이들 자신 장래에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따라서 부모의 기쁨도 되지 아니한다고 내내 우겨 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통학교의 교과서 같은 것을 참고해 가며 산술이니 일 어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니를 우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영주가 보기에는 그것이 도무지 시원찮고 미덥지가 못했다.

범수는 아내에게 너무도 번번이 듣는 푸념이라 그 대답을 또다시 되풀이하기가 성가시어 아무 말도 아니하려 했으나 아내는 오늘은 기어코 요정을 낼 듯이 기승을 부리려 든다.

㉢ “글썄 여보! 당신은 당신이 희망하는 일이나 있어서 그런다구 나는 어쩌라구 그리우?”

“넌들 희망을 따루 가지구 그리는 건 아니래두 그래! 자식들이 장래에 잘되어 잘살게 하자는 생각은 임자 허구 꼭 같지만 단지 내가 골라낸 방법이 옳으니까 그리는 거지…….”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공부 못한 놈이 막벌이 노동자나 되어 남의 하신나 받지 잘될 게 어데 있드람!”

“그건 이십 년 전 사람이 하든 소리야. 번연히 눈앞에 실증을 보면서 그래?”

“무어가 실증이란 말이요?”

“허! 그것참…… 여보 임자도 여자고보를 마쳤지? 나도 명색 대학을 마쳤지? 그런데 시방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을 좀 보지 못해?”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지…….”

“세상 탓이야…….”

㉣ “이런 세상에서두 남은 제가꿈 공부를 해가지구 잘들 살어값디다.”

“그건 우연이고 인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이 못살게 돼요…… 내 마침 생각이 났으니 비유를 하나 허께 들어 볼러우?”

“듣기 싫어요.”

영주는 말로는 언제든지 남편을 못 당하는지라 또 무슨 묘한 소리를 해서 올라미를 씹어나 싶어 툭 쏘아버렸다.

“하따 그러지 말구 들어 보아요…… 자, 시방 내가 돈이 일 원이 있다구 험시다. 그런데 그놈 돈을 어떻게 건사하기가 만만찮거든…… 돈을 넣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알겠수?”

“말해요.”

“그래 척 상점에 가서 일 원짜리 돈지갑을 사잖았수?”

㉠ “일 원 밖에 없는데 일 원짜리 지갑을 사?”

영주는 유도를 받아 무심코 이렇게 대꾸를 한다.

“거봐! 글썸…….”

하고 범수는 싱글벙글 웃는다.

“우리가 시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일 원 가진 놈이 일 원을 넣어 두랴고 일 원을 다 주구 지갑을 사는 셈이야.”

“어째서?”

“지갑을 쓸데가 있어야지?”

“두었다가 돈 생기면 넣지?”

“그 두었다가가 문제여든……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은 우리는 구경도 못해…… 알겠수?”

“난 모를 소리요.”

“못 알아듣기도 괴이찮지…… 그렇지만 세상은 부자 사람허구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은 모다 허깨비야.”

- 채만식, 「명일」

2. <보기>는 윗글에 대한 감상이다. 맥락을 고려하여 ①, ②에 부합하는 표현을 ㉠~㉢에서 찾아 해당하는 기호를 쓰고, ③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일제가 식민지 체제의 일환으로 도입한 근대적 교육 제도하에서 고등 교육까지 받은 사람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자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① )에서처럼 영주는 남편의 취직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며 희망을 놓지 못한다. 이는 범수가 일제의 식민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심한 기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가운 소식’을 기다린다는 것은 영주의 시대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한 영주는 ( ② )에서처럼 범수와 달리 당대의 교육 제도가 지닌 기만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반면, 범수는 ‘돈지갑’을 사는 행위와 ‘( ③ )’을/를 하는 행위를 견주어 설명함으로써 ‘돈지갑’이 있어도 돈을 벌어들일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것처럼, ‘( ③ )’을/를 하는 행위도 무용할 뿐이므로 자신이 가진 지식은 쓸모없다는 지식인의 현실 인식 태도를 보여 준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끔 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채만식의 풍자문학이 지닌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 예시 답안

- ① ㉞
- ② ㉞
- ③ 공부

풀이

이 소설은 대학을 나오고도 직업을 얻지 못한 채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범수와 아내 영주의 이야기다. 범수는 아내에게 ‘일 원’밖에 없는데 ‘일 원’으로 ‘지갑’을 사는 행위에 대해 비유한다. 자신이 받은 교육은 ‘일 원’으로 ‘지갑’을 사는 무용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일 원 가진 놈이 일 원을 넣어 두랴고 일 원을 다 주구 지갑을 사는 셈이야.”라는 범수의 말을 통해 ③은 “공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내 영주는 “이런 세상에서두 남은 제가꿈 공부를 해가지구 잘들 살아갑디다.”라는 말을 통해 범수와는 다르게 당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는 ㉞이다. 한편 영주는 “천하 없어 두 그건 안 짬혀요.”라며 범수의 취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①은 ㉞이다.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div>-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div> <div>-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div> <div>-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div> <div>- ①, ②는 각 3점</div> <div>- ③은 4점</div> | 10 |

### 문항 3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벤담의 패놉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도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코에게 있어서 패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었고,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 이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패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수를 잘 보여 주는 더없이 좋은 실례였다.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의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라는 푸코의 논평에서 보듯이, 우리의 사회가 거대한 패놉티콘, 즉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코가 전달하는 바였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패놉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는 데에 기인했지만, 그의 영향력이 큰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것은 패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 혁명 시대의 ‘전자 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 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 사회가 가져온 ‘전자 패놉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나이, 가족 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숫자로 치환된 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근대 관료제와 복지 국가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는 또 정보 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찰스 배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다.

정보 기술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그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했다. 미국의 경우 1971년에 미국 연방 수사국(FBI)의 국가 범죄 정보 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保釋)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 아이피(IP) 주소나 전자 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알이 기록해서 상관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낳았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 주민 카드에는 원래 주민 등록증, 주민 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 지문, 운전 면허증, 의료 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1개 항목이 통합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다.

감시는 데이터베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폐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기기를 통한 감시, 전자 지문·홍채·얼굴 모양·정맥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인공위성과 연결된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통한 감시, 휴대

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기업에서의 소비자 정보의 수집, 국가 기관에 의한 감시, 사설 기관에 의한 감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 패놉티콘’이라고 명명되었다. ‘패놉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면, ‘전자 패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에 피상적인 공통점이 있다.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일 수 있다.

3.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4개 찾아 각각의 기호를 쓰시오.

<보기>

- ㉠ 패놉티콘은 규율 사회에서 스펙터클의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 ㉡ 정보 기술은 정보의 처리, 수집 및 저장을 모두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 전자 패놉티콘은 컴퓨터를 통해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대상을 통제한다.
- ㉣ 근대 관료제와 달리 복지 국가는 숫자와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과 법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 푸코는 전자 패놉티콘을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했다.
- ㉥ 패놉티콘은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영혼의 규율로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 ㉦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에 감시당하는 대상은 모두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예시 답안

- ① ㉠
- ② ㉡
- ③ ㉢
- ④ ㉣

풀이

제시문은 벤담이 제시한 ‘패놉티콘’의 개념과 그에 대한 푸코의 해석, 더 나아가 현대의 ‘전자 패놉티콘’에 대해 설명한다.

푸코에 따르면 패놉티콘은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이끌었으며,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되었다. 푸코의 이러한 독창적인 해석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패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 혁명 시대의 ‘전자 감시’와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에 근대 관료제와 복지 국가는 숫자와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과 법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div>- ①, ②, ③, ④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div> <div>- ①, ②, ③, ④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div> <div>-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div> <div>-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div> <div>- 4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div> <div>- 3개가 정답이면 7.5점</div> <div>- 2개가 정답이면 5점</div> <div>- 1개가 정답이면 2.5점</div> | 10 |

**문항 4**

**[문제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상주의자들은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기하학적 원근법이나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구애되지 않으려 했다. 특히 그들은 빛이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상주의자들은 윤곽선이나 형태 및 입체감보다는 색채의 효과를 중시했으며,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현장에서 화폭에 담아냈다. 인상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모네가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잔은 모네의 이 말에 회의를 느끼고,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 세계’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

세잔은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이란 선·면·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 세계라는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려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잔은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다.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해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 점들이 아닌, 넓게 바른 색 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준다. 그것은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의 물체를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꽃병 왼쪽의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이나 식탁보와의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밑에 있는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금방이라도 사과들이 굴러떨어질 것만 같다. 그리고 식탁보 밑 왼쪽 탁자 면과 오른쪽 탁자 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 마치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모두 종전의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 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잔은 원근법적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대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해서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꽉 찬 느낌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면, 세잔의 그림은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세잔은 르네상스 이래 400년 이상 지켜 온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 세계에 의문을 가졌고, 그것을 대상 물체 중심의 조형 세계로 변화시킨 것이다.

세잔의 그림이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형태에 의해 색이 더 견고해지고, 색에 의해 형태가 더 풍부해지도록 구성했기 때문이다.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색의 명암이나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 사과와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했다. 또한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 계통이 도드라져 보이고, 차가운 느낌의 청록색 계통이 움츠러드는 듯 보인다는 점도 이용하여 양감을 나타냈다.

**(중략)**

세잔은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을 되살려 놓고 있으며, 그림 속의 형식적 구조에도 주목하고 있다.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식 구성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즉 눈에만 의존하던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미술과는 달리 그의 그림은 사유를 통한 물체의 이해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세잔의 이러한 방법은 이후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 경향들로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 예가 입체파이다.

세잔이 인상주의의 감각적 경험을 지적인 원리와 조화시키려 했다면, 입체파는 지적인 원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 물체의 형식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하여 세잔의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한층 더 심화한 것이다. 입체파 화가들은 그림의 대상인 물체를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해서 해체한 후 화면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입체파는 같은 시기의 야수파나 표현주의가 인간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보인 것과는 달리,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 이것은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 등의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한 1점 원근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한다. 우리의 눈은 전후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고, 그 전체의 모습을 구성해 낸다. 입체파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

4.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것이다. ㉠~㉦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3개 찾아 기호를 쓰고, 각각을 올바르게 고치시오.

<보기>

|      |                                                                                                                                                                                                                                                            |
|------|------------------------------------------------------------------------------------------------------------------------------------------------------------------------------------------------------------------------------------------------------------|
| 인상주의 | 이들은 윤곽선이나 형태, 입체감보다 색채의 효과를 중시하였으며, ㉠ 온도의 변화에 따른 대상 표면의 색 변화에 집중했다. 잘게 쪼갠 색의 점들을 이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 세잔   | 그는 인상주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을 되살리며, 그림 속 형식적인 구조에도 주목했다. 그는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를 결합한 미술을 만들어 냈으며,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체를 충실히 묘사하여 견고함과 안정감을 줌으로써, ㉡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 온 규칙에서 벗어났다. 또, 그는 ㉢ 윤곽선과 색이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견고하고 풍부한 색채의 작품을 만들었다.                 |
| 입체파  | 이들은 대상물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대상을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해서 해체한 후 화면 위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들은 ㉣ 대상의 위치를 고정하고 오직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하는 1점 원근법은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히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이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 다시점을 이용해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

|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기호 |   | 올바르게 고친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예시 답안

- ① ㉠
- ② 빛
- ③ ㉡
- ④ 형태
- ⑤ ㉢
- ⑥ 관찰자

풀이

제시문은 인상주의, 세잔, 입체파 등의 각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며 예술의 변천사를 보인다.

인상주의자는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집중한다. 특히 그들은 빛을 받는 자연 속 물체의 표면 색이 빛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것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그렇기에 인상주의자들은 윤곽선이나 형태, 입체감 등보다 색채의 효과 자체에 집중하였으며, 관찰한 자연 대상의 순간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인상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세잔은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인상주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을 되살려냈다. 그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달리 넓게 바른 색 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으며, 대상물의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견고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원근법적 그림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다른 대상들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체를 충실히 묘사함으로써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온 규칙에서 벗어났다. 그는 형태에 의해 색이 더 견고해지고, 색에 의해 형태가 더욱 풍부해지도록, 소묘와 색채가 서로를 보완하게 하였다.

입체파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가진 야수파나 표현주의와 달리,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에 더욱 큰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대상을 모든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해서 해체한 뒤 화면 위에서 재구성하곤 했다. 이들은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또, 이들은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하는 1점 원근법을 부정하였다.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div>- ①, ②, ③, ④, ⑤, ⑥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div> <div>- ①, ②와 ③과 ④, 그리고 ⑤, ⑥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함</div> <div>-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div> <div>-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div> <div>①, ②와 ③과 ④, 그리고 ⑤, ⑥을 1 set로 보고</div> <div>- 3 set가 정답이면 10점</div> <div>- 2 set가 정답이면 7점</div> <div>- 1 set가 정답이면 4점</div> | 10 |

## 문항 5

[문제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원이 설립된 곳을 살펴보면, 배향하고자 하는 선현의 연고지가 가장 많다.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의 출생지이거나 고향, 성장지,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으로 구분된다.

소수 서원은 안향(1243~1306), 임고 서원은 정몽주(1337~1392), 남계 서원은 정여창(1450~1504)의 고향에 각각 세워졌다. 미천 서원은 허목(1595~1682)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에 세워졌고, 옥천 서원은 김굉필(1454~1504)이 무오사화 때 유배되어 사약을 받은 곳에 세워졌다.

강학하던 곳, 또는 서당이 모체가 되어 서원이 설립된 곳으로는 이황(1501~1570)의 도산 서원, 조식(1501~1572)의 덕천 서원, 김장생(1548~1631)의 돈암 서원 등이 있다.

금오 서원은 고려가 망하자 길재(1353~1419)가 불사이군하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거한 고향에, 파산 서원은 성수침(1493~1564)이 은거하며 학문하던 곳에, 화양 서원은 송시열(1607~1689)이 강학하며 거처한 곳에 각각 세워졌다.

무성 서원은 신라 말에 최치원(857~?)이 현감을 지내며 선정을 베풀었던 곳에 세운 태산사를 모체로 하였다. 심곡 서원은 조광조(1482~1519)의 묘소, 자운 서원은 이이(1536~1584)의 묘소가 있는 곳에 세워졌다.

이와 같이 서원이 설립된 장소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연고지인 동시에 사림들이 은거하여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곳, 즉 산수가 빼어난 곳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백운동 서원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세워진 많은 서원들은 그러한 조건을 갖춘 곳에 건립되었다.

주변 풍광이 빼어난 곳에 서원이 자리를 잡게 된 원인으로는 성리학자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일 사상은 가장 중요한 유가적 관념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우주의 생명 전체가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다는 인생의 최고 이상이였다.

이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風月)을 가까이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따라서 자연과 함께하기에 가장 적합한 누정(樓亭)\* 형식의 건축을 서원 건축에 끌어와서 격렬한 논쟁도 하고 시회(詩會)\*도 열며 자연을 접하는 장소로 삼았다. 이러한 누(樓)는 주로 서원 진입부에 배치되었다.

사묘(祠廟)\*와 강당이 중심이 되는 공간은 유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수양을 하는 장수(藏修)\* 공간이었고, 연못과 누가 있어 자연을 바라보는 공간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고 즐기면서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유식(遊息)\* 공간이였다.

이때 건립된 서원의 입지와 배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원은 주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면에 세워지며, 건물 배치는 사당이 서원 영역 가장 뒤쪽에, 강당이 중간에 그리고 동·서재로 구성된 재사(齋舍)가 강당 앞쪽에 서로 마주 보며 위치한다. 제향 공간과 강학 공간은 둘레 담으로 싸여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데, 강학이 이루어지는 곳은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제향이 이루어지는 곳은 존엄하고 정밀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서원은 유생들이 함께 기숙하며 생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강당 앞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에 이들이 기거하는 재사인 동재와 서재를 배치하였다. 재사 건물들이 외부에 등을 돌리고 있어 폐쇄적인 듯 하지만 내부 뜰에서는 항상 밖으로 시선이 열리도록 공간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서원의 중심이 되는 곳인 강당에 앉으면 앞으로 멀리 안산(案山)\*이 보이도록 하여 유생들이 자연과 계절의 흐름을 알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 자연 경관을 이루는 나무, 돌, 물, 산 등에도 성리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지어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하였다.

서원의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지어져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물 배치와 조형의 차원으로 응축하여 승화시키고 있다. 요약하면,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이 서원 건축이다. 그러나 서원 건축은 17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인격 수양을 위한 강학보다는 선

현에 대한 제향이 중시되는 건축으로 바뀐다. 제향이 중시되는 서원은 강당이 서원 앞쪽에 위치하고, 동재와 서재가 강당 뒤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누정(樓亭):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아울러 이르는 말.

\*시회(詩會): 시를 짓거나 시에 대하여 토론·감상·연구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

\*사묘(祠廟): 위패를 모신 사당.      \*장수(藏修): 책을 읽고 학문에 힘씀.

\*유식(遊息): 마음 편히 쉬.      \*안산(案山):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밭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5.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①~⑤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보기>

|               |                                                                                                                        |
|---------------|------------------------------------------------------------------------------------------------------------------------|
| 서원의 입지        | 성리학자들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우주의 생명 전체가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다는 인생 최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 ① )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변 풍광이 빼어난 곳에 입지함.              |
| 공간의<br>구성과 특성 | ( ② ) 공간과 ( ③ ) 공간은 둘레에 담을 쌓아 각각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함.<br>( ② ) 공간은 존엄하고 정밀한 공간으로, ( ③ ) 공간은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조성됨.              |
| 건물의 배치        | ( ④ )은/는 외부에 등을 돌린 채 서로 마주 보는 형식으로 배치하여 외부로부터는 폐쇄적이면서도 안에서는 밖을 조망하게 함.<br>( ⑤ )은/는 중간에 배치하였으나, 17세기 중반부터는 앞쪽으로 위치하게 함. |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④ : \_\_\_\_\_

⑤ : \_\_\_\_\_

## ■ 예시 답안

- ① 천인합일
- ② 제향(공간)
- ③ 강학(공간)
- ④ 재사(건물 혹은 건물들)
- ⑤ 강당

### 풀이

제시문은 우리의 서원 건축에 담겨 있는 인문학적 통찰을 살펴볼 수 있는 글로 옛 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의 입지조건과 건물배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서원은 설립한 성리학자의 연고지로 설립되어 졌는데, 성리학자들이 은거하여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곳 이면서,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天人合一)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되었다.

서원의 진입부는 자연과 함께하기에 가장 적합한 누정(樓亭)을 배치하였고, 유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 에 힘쓰며 수양을 하는 강당과 사묘(祠廟)를 두어 연못과 누가 있어 자연을 바라보는 공간으로 배치하였고, 이 공간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고 즐기면서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유식(遊息)공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유생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이들이 기거하는 재사인 동재와 서재를 배치하였는데, 재사 건물들이 외부에 등을 돌리고 있어 폐쇄적인 듯 하지만 내부 뜰에서는 항상 밖으로 시선이 열리도록 공간 처리를 하였다.

서원의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지어져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물 배치 와 조형의 차원으로 응축하여 승화시키고 있는 점은 지켜나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원 건축은 17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인격 수양을 위한 강학보다는 선현에 대한 제향이 중시되는 건축으로 바뀐다. 제향이 중시 되는 서원은 강당이 서원 앞쪽에 위치하고, 동재와 서재가 강당 뒤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②, ③, ④, ⑤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① 天人合一, ④ 齋舍으로 제시문의 한자로 정확하게 기술한 경우 정답으로 처리함</li> <li>- ② 제향 공간, ③ 강학 공간, ④ 재사 건물 혹은 재사 건물들로 기술한 경우 정답으로 처리함</li> <li>-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li>-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li> </ul> | 1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모두가 정답이면 10점</li> <li>- 4개가 정답이면 8점</li> <li>- 3개가 정답이면 6점</li> <li>- 2개가 정답이면 4점</li> <li>- 1개가 정답이면 2점</li> </ul>                                                                                                                                                   |    |

**문항 6**

[문제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나)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6. <보기>는 윗글에 대한 이해이다. 맥락을 고려하여 ①~③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나 시구를 찾아 쓰시오.

**<보기>**

(나)는 (가)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가)는 본질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 ① )(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나)는 의미 없는 존재라는 추상적 관념을 ( ② )(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시상 전개 과정, 문장의 구조면에서 (가)와 유사하다. 하지만 시어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나)에서는 ‘꽃’ 대신

‘라디오’와 ‘버튼’, ‘전파’ 등 현대적인 시어를 썼다. 또한 (가)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진정한 관계 형성을 소망하는 것과 달리, (나)에서는 ‘( ③ )’이/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즉, (나)는 (가)의 표현 및 구성의 틀을 따르되, 형식적인 차이보다는 내용의 재창조에 주력한 작품임을 이해할 수 있다.

① : \_\_\_\_\_      ② : \_\_\_\_\_      ③ : \_\_\_\_\_

■ 예시 답안

- ① 꽃
- ② (하나의) 라디오
- ③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

풀이

장정일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시문의 (가) 시 2연에서 존재의 본질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는 시어는 ‘꽃’이다. (나) 시의 1연에서 ‘(하나의) 라디오’는 의미 없는 존재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는 사물이다. (가) 시의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과 대응되는 (나) 시의 구절은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인데, 전자는 진정한 관계 형성의 소망을, 후자는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용을 재창조하는 패러디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div>-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div> <div>- 정답 이외에 다른 답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div> <div>- 부정확한 글자나 문장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div> <div>- 3개가 모두 정답이면 10점</div> <div>- 2개가 정답이면 7점</div> <div>- 1개가 정답이면 4점</div> | 10 |

#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 이용 안내

|       |                 |
|-------|-----------------|
| 무료 체험 |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
| 개인 플랜 | 월 9,900원        |
| 교사 플랜 | 월 29,900원       |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